



금융감독원

## 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11.11.(월) 조간	배포	2024.11.8.(금)
----	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국제업무국(금융중심지지원센터)	책임자	국 장	박시문	(02-3145-7890)
	국제협력팀	담당자	팀 장	박은혜	(02-3145-7892)
	금융중심지지원팀	담당자	팀 장	유명신	(02-3145-7901)

## 금감원장, 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참석 및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최고위급 면담 예정

- ◆ (개요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 국제화 지원 및 글로벌 금융감독 현안 논의를 위하여 '24.11.11.(월)~15.(금) 기간 중 동아시아 주요 3개국(베트남, 홍콩, 인도네시아)을 방문할 예정
- ◆ (홍콩 IR) '24.11.13.(수) 금감원·지자체(서울시, 부산시)·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해외 투자설명회(IR)에 참석하여,
  -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중심지 홍보, 해외 투자유치·현지 영업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
- ◆ (감독당국 면담) 베트남·홍콩·인도네시아 현지 금융감독기관과 최고위급 면담을 통해 글로벌 감독협력 및 금융권 상호진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\*
  - \* '24.11.11.(월) 베트남 중앙은행(SBV), '24.11.14.(목)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FC) 및 금융관리국(HKMA), '24.11.15.(금) 인니 금융감독청(OJK)
  - 금융회사의 진출·영업확대 수요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주재국 감독기관에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,
  -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진출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 현황 및 의지를 전달할 계획
- ◆ (금융회사 간담회) 베트남['24.11.11.(월)]·인도네시아['24.11.15.(금)]에서는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K-Finance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격려하고,
  -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 및 감독관행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

## 1 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 공동 개최 홍콩 투자설명회(11.13.[수] 참석)

- 이복현 원장은 '24.11.13.(수), 서울시 정무부시장, 금융회사 CEO 등과 함께 금감원·지자체·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투자설명회(IR)\*에 참석할 예정

\* 「INVEST K-FINANCE: HONG KONG IR 2024」: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금감원, 지자체(서울시·부산시), 4개 금융회사가 공동 개최

- (일시) '24.11.13.(수) 14:00~16:30 (현지시간 기준)
- (장소)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(그랜드볼룸)
- (참석자) 금감원장, 서울시 정무부시장, 4개 금융회사 대표단(하나금융지주 회장, 신한지주 회장,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,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), 駐홍콩 한국 총영사, 아시아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(ASIFMA) CEO,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등 230명 내외

- **[세션I]**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를 홍보

-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노력과 지향점\*을 제시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할 예정

\* 주주가치 우선 보호, 국제정합성에 맞는 인프라 구축, 한국 경제체질의 근본적 개선

- 아울러, 금융감독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제\*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정책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

\* 예) 기관투자자의 스튜어십코드 이행,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,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, 상장제도 정비,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, 영문공시 의무화 등

-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\*을 공유할 예정

\* 밸류업 참여기업에 대한 우수기업 표창, 밸류업 참여기업 투자활성화 방안 (밸류업 지수 연계 ETF 출시, 기업밸류업 펀드 조성) 등

- 한편, 서울시와 부산시(부산국제금융진흥원)는 서울·부산 금융중심지를 홍보함으로써 투자자의 관심과 한국시장 진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

- **[세션Ⅱ]** 이복현 금감원장과 참여 금융회사 대표단은 **패널 토론**을 통해 **해외투자자 질의에 대한 의견 교환**을 진행할 예정
- 외국인 투자자와의 **현장 Q&A\***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, 참여 금융사별 기업밸류업 진행 현황 및 금융 환경 변화의 대응전략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
- \* 기업밸류업 정책, 주주이익 보호 방안, 공매도 재개 등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주제와 함께 금융사별 저평가 해소, 고령화 대응, 해외진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

## 2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기관 수장 최고위급 면담

- 이복현 원장은 베트남·홍콩·인니 금융감독기관장 등을 예방하여 양국간 감독협력·공조 강화 및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·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일 예정

- \* ① (11.11.[월]) 베트남 중앙은행(State Bank of Vietnam) 팜 쾡 중 부총재  
 ② (11.14.[목]) 홍콩 증권선물위원회(Securities & Futures Commission) 줄리아 룡 CEO  
 ③ (11.14.[목]) 홍콩 금융관리국(Hong Kong Monetary Authority) 에디 유 총재  
 ④ (11.15.[금])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(Otoritas Jasa Keuangan) 마헨드라 시레가 청장

- **(베트남 SBV)**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·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국내 은행,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촘촘한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하고,
  - 베트남 당국이 추진중\*인 은행산업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처리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계획
- \* '22년 SCB뱅크런 이후 베트남 중앙은행은 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처리를 당면과제로 안고 있으며 신용기관법 개정(24.7월 시행) 등으로 대응 중
- **(홍콩 SFC)** 공매도 규제,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·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의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기관간 협력·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\*
  - \* '24.5.17.에는 함용일 부원장이 홍콩 SFC 기관장을 예방하여,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방향, 기관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면담한 바 있음

- 특히, 한국 금융당국이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저해 요인을 차단하고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,
-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·배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실제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
- **(홍콩 HKMA)** 글로벌 탄소규제 강화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 가운데, 역내 감독협력 파트너로서 지속가능금융 관련 감독현황과 함께 금융중심지 조성·발전 정책 및 노력을 공유할 예정\*
- \* 홍콩 HKMA는 '24.10월 역내 지속가능금융 중심지 비전을 위해 "지속가능금융 액션 아젠다"를 발표하고 탄소중립 목표 제시, 은행 기후공시 강화 등 8개 목표를 수립
- 은행 탄소중립 및 기후공시, 녹색분류체계(택소노미) 적용,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·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해 논의하고,
- 중국 본토의 경기부양 정책 등 글로벌 금융·경제정책 동향, 금융시장·산업에 대한 영향 및 감독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류할 계획
- **(인니 OJK)**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및 감독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본국·주재국 감독기관으로서의 협력·정보공유 강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
- 특히, 한국 감독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,
-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외진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, 외연 확장 속에서도 건전성이 충실히 관리되도록 면밀히 살피고 있음을 설명할 계획

- 아울러, 금감원-OJK간 임직원 상호수견 연수 프로그램\*을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감독협의·정보공유 채널(예: 한-인니 금융감독포럼 개최) 등으로 한층 심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

\* '23.9월~'24.3월중(6개월) 금감원 및 금융권·유관기관이 참여하는 1차 OJT 연수를 진행하였으며, 현재 2차 OJT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임

### 3 베트남·인니 현지 진출 금융회사 간담회

□ 이복현 원장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방문 일정에 맞춰 현지 금융 시장 및 감독·규제 현황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지 진출 국내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

- 베트남·인도네시아는 국내 금융회사의 확장 수요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자국 금융시장 보호정책\*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,

\* 자국 금융회사 인수를 우선시하는 신규 인허가 정책 기조 및 현지 채용 확대 요구 등

- 현지 금융시장 여건과 함께 현지영업 확대에 애로가 되는 규제·감독관행 등이 있는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적이고 다각적인 지원·관리 방안을 살펴볼 계획\*

\* 금융당국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자회사 소유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『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개선 방안』을 발표('23.7월)한 바 있음